

지역개발연구부

지역개발이라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아파트단지 및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지역에 존재하거나 생산되는 자원을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게 만들거나 지역의 잠재력을 지역의 발전으로 이끄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자연환경의 가치를 간과하던 시절의 개발은 자연환경이 훼손되더라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훼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의 개발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최소한의 훼손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더불어 어우러졌을 때만이 개발이 보다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개발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비용의 절감이나 사업추진의 편리성을 앞세우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여, 친환경적이지 못한 지역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개발은 결국 지역의 도시문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최근 “지속가능한” 또는 “친환경적인”이란 단어가 “개발”이란 단어 앞에 쓰이게 됨으로써, 이전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개발방식을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연구의 방향도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집중으로 수도권은 인구과잉의 상태이지만, 농촌지역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과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기존 정주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던 소도읍이 쇠퇴함으로써 더욱 농촌지역이 경제적으로나 생활환경 측면에서나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 보고자 정부는 소도읍육성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까지 이전하고자 연구와 이 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볼 때, 과거 중앙에서 지방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지역불균형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이 모자랐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마다의 자기 지역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방연구원이 담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이러한 사명감에 본 연구원의 지역개발연구부는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잠재된 역량을 심분 활용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촉진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지역에 대한 미흡한 기초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 나가고, 이와 더불어 21세기 지역개발의 변화를 충분히 연구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연구하거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충남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충실한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여러 시·군의 장래 비전을 제시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천안시 남동부권역 도시관리계획수립,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 보령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연구 등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지역연구와 더불어 안면도 대부초지 활용

방안 연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연구 등 지역의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충남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 연구,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연구 등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에서 충남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전념해 왔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향 및 적용기법을 제안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진취적인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봉운 책임연구원)